

망자천도굿에서 상징하는 무복의 특성 -진도 씻김굿과 서울 진오기굿을 중심으로-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man Costume Symbolized in Mangjachoendo gut -Using the Comparison Between Jindo Sitggimgut and Seoul Jinoggi Gut-

Eun-Jung Kim

Dept. of col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7. 14. 접수)

Abstract

According to the way of expression and the ritual procedur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stume between Jinoggigut in Seoul and Sitggimgut, hereditary dance in the southern part of Joella province. Even though they share the same story, which is to soothe the spirit of the deceased and to listen to the grudge of the remained, the two shaman rituals are slightly different in their costum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in Seoul Jinoggigut, and Jindo Sitggimgut are as follows; First, both in Seoul Jinoggigut, a spiritual dance and Jindo Sitggimgut, a hereditary dance, the universal roles of shaman costume, which are generally shown in "gut", are found-build a sacred environment, prepare for the experience of the spiritual world, listen to the grudge of the deceased and wish for God's bless. Second, the shaman costume has a special role to express specific and complex symbols-representing God on one hand, symbolizing the dead on the other.Third, unique symbols are found in the costume of Mangjachoendogut with the formality of the ritual procedure.

Key words: Shamanism, Shaman costume, Seoul Jinoggigut, Mangjachoendogut, Jindo Sitggimgut; 무속, 무복, 서울진오기굿, 망자 천도굿, 진도 씻김굿

I. 서 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방면으로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종교적 가르침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그 이후의 세계인 저승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Mary Jo Medow, 1992). 이러한 죽음에 대한 해결 방법 중의 하나인 망자천도굿은 삶을 방해하는 액운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지혜의 결

정으로 삶의 응어리를 푸는 곳이다(강혜숙, 1984).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진오기굿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굿이고, 진도 씻김굿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행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굿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속은 원래 특별한 교리나 경전에 의해 믿어지기보다는 제의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무속의 의례를 수행함에 있어 무복은 의례 중에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의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역할도 담당했다.

그 동안의 통상적인 복식연구는 일정한 범주 내에

정형화된 복식제도나 복식류 착용을 그 기본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지역적·시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무복연구는 특수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그 다양한 유형 속에 내재된 공통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망자의 혼을 달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굿을 진행하는 서울 진오기굿과 진도 씻김굿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여 설정하였다. 강신무인 서울지역 진오기굿과 세습무인 전남지역 씻김굿에서 착용하는 복식은 제의절차와 외적표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일한 내용의 굿이 서로 다른 제의절차를 통해 강신무와 세습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복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굿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현장론적 방법에 의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민속학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있는 망자천도굿에 대한 선행연구(김인회, 1993; 김덕목, 1998; 조홍윤, 이보형, 1993; 나경수, 1994; 국립민속문화연구소, 1998; 황루시, 2001; 서울새남굿보존회, 1996)와 굿거리에서 촬영했던 비디오와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박병천 일가의 진도씻김굿과 국사당에서 진행하였던 이상순 진오기굿을 살펴보고, 이차적으로 굿을 진행했던 무당과의 면담을 통해 복식학적 입장에서 굿의 성격과 제의절차에 나타난 무복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II. 망자천도굿의 意味

한국의 굿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은 이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에는 망자천도굿이 있다(김덕목, 1999). 하효길 외(2002)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평안도 다리굿, 함경도 망목굿, 황해도의 진오기굿, 서울의 진오기굿·새남굿, 동해안지역의 오구굿, 남해안의 오구새남굿, 전라도 씻김굿, 제주도의 귀향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동안 학자들이 정리한 용어를 망자천도굿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동식(1974)은 지방에 따라 사령제의 명칭들이 다르나 가장 보편적인 명칭은 오구, 또는 진오구이라 한다.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獄등의 한자음을 빗대보고 풀이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한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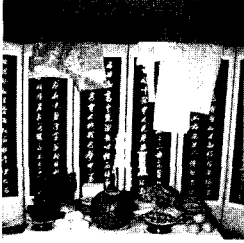
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오구굿이니 오기굿이니 하는 것은 곧 죽은 지 얼마 안되어 지내는 굿이란 뜻이다. 경남지방에서 시체 앞에서 하는 굿을 진오구라 하고 죽은지 일 이년이 지난 후의 굿을 오고굿이라고 한다. 요컨대 죽은이가 가는 저승은 해지는 남방에 있다 생각하고 죽은 영을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란 뜻이다. 김태곤(1992)은 진오기의 진은 굿은 것을 뜻하고 오기는 옥의 요철로 이음질이 된 것이라 생각되어 獄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진오기는 굿은 獄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나경수(1994)는 씻김굿이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특징인 정통 세습무에 의해 수행되는 굿으로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종교적이며,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씻겨줌으로써 저승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속적 제의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씻김굿은 반드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학자들은 지역에 따라 망자천도굿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망자천도굿을 행할 때 중부 이북 지방의 무복은 매우 주술적인 반면, 남부지방은 세습무가 우세하여 복식에 있어서 중부 이북과는 달리 각거리에 따라 무구에 무복이 축약되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1. 진도 씻김굿

널리 알려진 대로 진도 씻김굿은 세습무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굿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호남의 굿은 예술적 측면이 부각되고, 극적 의례성과 상징성이 돋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이경엽, 1998). 진도에서 행하는 씻김굿의 종류는 다양하다. 상가에서 하는 콧머리 씻김굿, 교통사고 등으로 사고사를 당한 경우에 혼맞이굿, 처녀, 총각으로 죽은 사람의 사후 혼을 천도하는 저승혼사굿 등이 있다(이경엽, 2002). 씻김굿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살아있는 가족을 위한 의례내용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씻김굿은 안당으로 시작한다. 안당에서 초가망, 손님굿, 제석굿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사실상 산 사람을 위한 굿이라 볼 수 있다. 안당은 가신과 조상에게 아뢰는 굿이고, 초가망은 여러 신을 청하는 것이며, 손님굿, 제석굿은 무병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축원하는 굿이다. 따라서 정작 죽음을 다루는 부분은 조상신을 물리고 본격적인 망자의례로 들어가는 고평



<그림 1> 초가망석



<그림 2> 제석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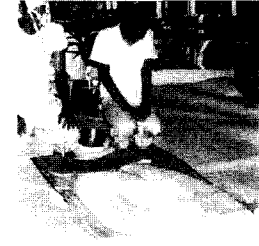
<그림 5> 길뉘음



<그림 6> 증천맥이



<그림 3> 씻김



<그림 4> 뉘풀이

이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평이, 씻김, 뉘올리기, 길뉘음으로 이어지는 굿에서 뒷부분은 전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한 의례가 되는 것이다. 진도 씻김굿에 나타나고 있는 제의절차에 따라 구성과 무부의 종류를 정리하면, 진도 씻김굿에 나타난 제차는 청신, 오신, 망자천도, 배송의 단계로 기능을 구획 지을 수 있다. 청신과 오신은 가택신, 조상신, 잡귀에 대한 것이고, 망자천도는 씻김굿의 직접 대상인 망자(亡者)에 대한 것이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에 따라 거리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박병천 일가 진도 씻김굿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리 순서에 따른 <그림 1> 초가망석은 혼맞이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거리로, 망자의 혼을 부르기 위해 바지, 저고리를 걸쳐놓는다. <그림 2> 제석굿은 제석님이 뉘을 씻겨서 극락으로 데려가는 거리로, 무당은 신을 상징하기 위해, 장삼·가사·고깔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3> 씻김은 망자를 맑은 물로 씻겨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으로 영둔말이라고도 하는데, 무당은 망자의 의복을 만 다음 일곱 마디를 묶어 세운다. <그림 4> 뉘풀이는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굿으로, 명석 위에 망자의 의복을 펴놓고 그 위에 뉘전을 올려놓는 거리로 무당은 망자의 옷을 사람의 형태로 저고리, 바지, 버선 순으로 펼쳐놓는다. <그림 5> 길뉘음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길을 닦는다는 의미이다. 무당은 망자의 옷을 무명천 위에 올려놓고, 무명천 위에서 흔들어준다. <그림 6> 증천맥이

는 증천이라고도 하는데, 굿에 따라온 잡귀를 보내기 위해 굿에 소용된 물건을 태우는 거리로 무당은 살아있는 사람과의 단절을 상징하듯 망자의 옷을 태워 이승과의 하직을 나타낸다.

2. 서울 진오기굿

진오기굿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명부로 가는데 칠칠이 사십구제일이나 혹 백일제일을 넘기지 않고 무당들이 굿을 하여 혼백을 청하여 놀리어 천도하는 굿제이다. 서울지역에서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 의해 간편하게 행해질 때 진오기굿이라고 규모를 크게 해서 할 때는 새남굿이라 하였다. 진오기는 무당이 뉘을 불러 무당의 몸에 실려서 생전에 다정하였던 사람이며 또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바리공주의 뒤를 따라 극락정토 후세환생하기를 발원하는 굿이다(장성만, 1992). 진오귀굿은 지노기, 진오기라고도 불리며 무당에 따라 진오기굿 진진오기굿 등 명칭이 다양하다. 어떤 무당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구분하기도 하고, 3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무당도 있다(홍태환, 2002). 무당이 주관하는 굿에 따라 제차는 차이가 있으나 이상순 무당이 진행했던 진오기굿에서 나타난



<그림 7> 영실



<그림 8> 대갑



<그림 9> 말미



<그림 10> 도량돌기



<그림 11> 뒷영실



<그림 12> 시왕군웅

제의 절차에 따른 거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거리 순서에 따른 <그림 7> 영실은 망자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거리로 무당은 망자의 옷을 착용하고 상주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거리이다. <그림 8> 대감거리는 군웅대감, 몸주대감, 터주대감을 모셔 노는 거리로 무당은 대감신을 상징하기 위해 갓을 쓰고, 홍색철릭을 착용한다. <그림 9> 말미거리는 바리공주와 십대왕을 모시는 거리로 무당은 신을 상징하기 위해 몽두리를 착용한다. <그림 10> 도량돌기는 무조신인 바리공주가 망자의 혼백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거리로 무당은 큰머리에 바리공주 무복을 착용한다. <그림 11> 뒷영실은 망자의 혼이 썩어져 유족들에게 망자가 생전에 못 다한 말과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리로 무당은 망자의 옷을 착용한다.

<그림 12> 시왕 군웅거리는 저승에서 호위하여 모시는 신장들에게 망자의 혼백의 인도를 알리고 잘 보살펴 주기를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신격을 상징하기 위해 갓을 쓰고 홍색철릭을 착용한다.

III. 망자천도굿에 나타난 무복의 종류

1. 세습무인 진도 씻김굿복식

일반적으로 씻김굿의 제차는 13거리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재하는 단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 1>은 2001년 12월 박병천 일가의 진도 씻김굿을 기준으로 제의절차에 따른 구성전반을 도시하였다.

<표 1> 진도 씻김굿 제의 절차에 따른 구성

	구 성	대 상	기 능	무복의 역할
안당굿	전반부	가택신	청신(淸神)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 (백색저고리, 백색치마)
초가망석		조상신		도구로 사용되는 망자옷 (하늘색 바지, 저고리)
손님굿		객 신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 (백색저고리, 백색치마)
제석굿	중반부	가택신	오신(誤神)	신을 상징하는 무복 (반비장삼, 홍색대대, 고깔)
고풀이		조상신		
씻김		혼 객		
넋을림		망자(亡者)	망자천도(亡者薦度)	도구로 사용되는 망자옷 (하늘색 바지, 저고리)
천근				
희설				
길담음				
증천	중반부	제신(諸神)	배송(拜送)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 (백색저고리, 백색치마)

<표 2> 서울 진오기굿 제의 절차에 따른 구성

	구성	대상	기능	무복의 역할			
주당물림	전반부	가택신	정화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 (옥색저고리, 남색치마)			
부정				신을 상징하는 무복 (장삼, 홍대, 고깔, 갓, 남색철릭)			
가망							
상산							
별상·신장		별상대감	신놀림	무당이 망자의 옷 착용 (백색저고리, 백색바지, 백색두루마기)			
영실	영실대감						
대감	중반부	망자(亡者)	망자천도	신을 상징하는 무복 (몽두리, 당의, 큰머리, 홍색철릭, 남색치마)			
사제삼성				무당이 망자의 옷 착용 (백색저고리, 백색바지)			
말미							
도량돌기				신을 상징하는 무복 (옥색저고리, 남색치마, 홍색철릭)			
상식							
뒷영실							
베가르기				중반부	제신(諸神)	배송(排送)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 (옥색저고리, 남색치마)
시왕군웅							
뒷전							

으며, 사진자료는 진도씻김굿(황루시, 2001)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굿의 기능은 크게 청신, 오신, 망자천도, 배송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진도씻김굿에서 무복은 무당이 착용할 뿐만 아니라, 굿을 할 때 도구로서 사용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무복의 종류는 망자의 성별에 따라 여자는 치마·저고리, 남자는 바지·저고리를 병풍 위에 걸쳐놓고 망자의 영혼을 불러들인다. 불러들인 영혼은 마당에 짚자리를 펴고 그 위에 신체를 상징하는 망자의 의복을 넣어 둘둘 만 다음 마디를 묶어 세워놓는다. 이렇게 말아 세워놓은 무복은 신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망자가 살아 돌아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망자의 옷을 펼쳐 놓는다. 펼쳐지는 그 형태가 머리 위치에 넋을 상징하는 종이를 올려놓고 저고리와 치마·바지·버선의 순서로 펼쳐놓아 사람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망자가 저승으로 잘 가라는 의미로 무명 천을 길게 펴놓고 그 위에 망자의 옷을 올려놓고 굿을 한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망자의 옷을 태움으로 부정을 방지하고, 살아있는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처럼 앞부분에는 삶을 다루고 뒷부분에서 죽음을 다루는 굿의 구성은 서울 진오기굿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진오기 굿의 경우 앞부분은 제수 굿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망인을 위한 의례

는 굿의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2. 강신무인 서울 진오기굿 무복

일반적으로 진오기굿의 제차는 13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무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 2>는 2002년 5월 국사당에서 행해졌던 서울 진오기굿을 진도 씻김굿을 기준으로 해서 제의절차에 따른 구성전반을 주무당인 이상순 무당의 면담을 통해 도시한 것이다. 굿의 기능은 크게 정화, 신놀림, 망자천도, 배송의 단계별로 진행된다. 서울 진오기굿에서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망자천도굿거리로 사제삼성, 말미, 도량돌기, 베가르기, 상식은 바리공주 무복을 착용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의례이다.

IV. 망자천도굿 무복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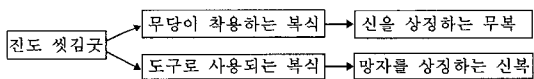
망자천도굿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한풀이이다. 서울 진오기굿은 신놀림 무당이 스스로 망자가 되어 망인의 한을 닦두리로 풀어낸다. 세습무는 신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굿 가운데서 망인으로 전환되는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세습무들의 한풀이는 그 표현이

지극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복을 도구로 사용하여 망자를 형상한다. 그것은 망자의 옷을 걸쳐놓고 망자의 혼을 부르고, 펼쳐놓아 망자의 영혼을 상징한다.

씻김굿에서 복식은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과 무당이 도구로 사용하는 복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은 굿의 진행상 흰색저고리와 치마를 입어 신을 청하고, 신을 맞이할 때는 반비 형태의 흰색장삼에 홍색대대를 두르고 흰색고깔을 쓴다. 둘째는 무당이 도구로 사용하는 복식인 백색저고리와 백색치마, 백색바지를 망자의 신체로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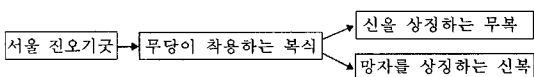
굿을 행하지 않을 때의 무복은 일반복식과 같으며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굿을 행할 때의 무복은 걸어놓은 무복뿐만 아니라 무당이 손에 들고 있는 무복이라 하여도 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진도 씻김굿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종류를 제외절차에 따라 구성전반을 도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무복의 역할



서울 진오기굿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은 종류가 다양하나 진도 씻김굿과는 달리 무당이 직접 망자의 옷을 착용하는 무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은 망자를 상징하는 신복으로 영실에서는 백색저고리에 백색바지를 백색저고리에 백색치마를 착용한다. 신을 상징하는 무복으로는 가망청배에서 장삼에 가사를 착용하고, 별상거리에서는 노랑색 길에 황색소매로 되어 있는 동다리를 착용한다. 대감거리에서는 홍색철릭을 착용하고 말미거리에서는 황색 목단 자수가 뒷길에 놓여져 있는 황색의 몽두리를 착용하고 큰머리를 하여 바리공주를 상징하며, 사제삼성에서는 황색길에 홍색소매가 달린 두루마기를 착용한다. 이러한 서울 진오기굿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종류를 제외절차에 따라 구성전반을 도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무복의 역할



굿 연행에는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굿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 무당이 거리마다 사용하는 특별한 소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복을 들 수 있다. 무당이 무복을 갈아입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한 거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알린다. 또한 무당이 신을 맞이하여 신의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 거리에 하강하는 신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기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복은 굿거리마다 무당이 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복은 망자천도굿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망자천도굿에서 무복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편성, 특수성, 상징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보편성

강신무인 서울 진오기굿이나 세습무인 진도 씻김굿에서는 무복을 입음으로써 성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영계와 접촉할 준비를 하고 영계를 받아들여 망자의 혼을 들어주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산사람들의 허망함도 위로하여 복을 기원하는 일반적인 굿에서 나타나는 무복기능의 보편성을 볼 수 있다. 보편은 하나를 뜻하는 uni와 turn을 의미하는 versus에서 나온 verse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즉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 하나로 통하는 것이라는 어원을 가진다. 따라서 보편이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이 된다(신기철, 신용철, 1989). 망자천도굿에서 무복은 청신, 오신, 송신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망자천도굿도 일반굿처럼 어떤 신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무복을 달리하는 보편성을 나타낸다.

2. 특수성

진도 씻김굿과 서울 진오기굿에서 무복의 역할은 제외절차와 외적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습무인 진도 씻김굿의 경우는 무복의 상징체계가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과 무당이 도구로 사용하는 무복이라는 상징체계가 직접적으로 남아있고, 강신무인 서울 진오기굿의 경우는 굿거리마다 다양한 무복을 갈아입어 무복을 착용함으로써 직접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망자를 상징하는 상징체계를 갖추고 있는 무복역할의 특수성을 볼 수 있다.

특수성은 절대적인 경계가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호관계에 따라 보편성이 될 수도 있고 개별성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개체는 순수한 개별자

일수도 보편자 일수도 없으며 보편성과 개별성은 그 안에 포함하게 된다(유수진, 1999).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신과 인간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굿은 일정한 질서 아래 인간과 신의 공간이 만나는 특수한 지점에서 형성된다. 굿을 한다는 것은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이 가능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 특수한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굿에 표현되고 있는 의식절차의 일상적인 질서에는 삶과 죽음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망자천도굿인 셋김굿과 진오기굿에서 볼 수 있는데 죽은 조상들이 나타난 후손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상징성

망자천도굿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례절차가 갖는 형식적인 짜임새 속에서 복식은 독특한 상징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속에서 쓰여지는 복식은 굿의 주재자인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 이외에도 무구의 일부로서 진도 셋김굿처럼 사용 될 경우, 영혼의 옷으로 의복을 걸쳐놓은 옷, 펼쳐놓은 옷은 복식을 망자의 신체와 동일시하여 망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굿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의미를 무복을 통해 상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복은 굿이 전달하는 상징의미를 잘 이해하게 해 주는 매개체로서 망자천도굿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례절차가 형식적인 짜임새 속에서 독특한 상징의미를 무복을 통해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당은 이러한 망자천도굿을 통해 현실세계와 타계의 경계를 허물어 인간과 신과 조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착용하는 무복은 세습무나 강신무에 상관없이 영적 세계로 떠나는 일종의 통행증과 같이 무당이 입거나 도구처럼 공연하는 모양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가지기에, 무가 의미의 전달을 위하여 착용하는 무복은 상징적 의미나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田口良司, 2001).

V. 결 론

복식은 인간 본연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데, 특히 일반복식이 아닌 종교 복식에 있어서는 그 정신 세계

의 상징성이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서 종교의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굿에서 동일한 의미로 망자의 혼을 달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굿을 진행하는 서울 진오기굿과 진도 셋김굿에 나타난 무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자천도굿에서 무복의 내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진도셋김굿처럼 무복이 무구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능은 동일했다. 강신무인 서울 진오기굿이나 세습무인 진도셋김굿에서는 무복을 입음으로써 성의 공간을 형성하고 영계와 접촉할 준비를 하고 영계를 받아들여 망자의 한을 들어주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산사람들의 허망함도 위로하여 복을 기원한다. 이는 일반적인 굿에서 나타나는 무복기능의 보편성을 볼 수 있다.

둘째, 진도 셋김굿과 서울 진오기굿에서 무복의 역할은 제의절차와 외적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습무인 진도 셋김굿의 경우는 무복의 상징체계가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과 무당이 도구로써 사용하는 무복이라는 상징체계가 직접적으로 남아있고, 강신무인 서울 진오기굿의 경우는 굿거리마다 다양한 무복을 착용함으로써 직접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망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징체계의 수단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무복역할의 특수성을 볼 수 있다.

셋째, 무복은 굿이 전달하는 상징의미를 잘 이해하게 해 주는 매개체로서 굿의 각 거리별 특징을 구별해 주는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망자천도굿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례절차가 형식적인 짜임새 속에서 독특한 상징의미를 무복을 통해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숙. (1984). 황해도 굿춤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회*, 3, 76.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서울새남굿*. 대흥문화사.
- 김덕목. (1999). *황해도 진오기굿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희. (1993). *황해도 진오기굿*. 열화당.
- 김태곤. (1992). *한국무가집*. 집문당.
- 나경수. (1994).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 Mary J. M., & Richard, D. K. (1992). *종교심리학*. 민족사.
- 서울새남굿보존회. (1996). *서울새남굿 신가집*. 문덕사.

신기철, 신용철. (1989). *새우리말 큰사전상*. 삼성출판사.
 유동식. (1974).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철학*. 문학사상.
 유수진. (1999). *복식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엽. (1998). *무가문학연구*. 박이정.
 이경엽. (2002). 순천셋김곳 연구. *한국무속학회*, 5, 147-169.
 장성만. (1992). *곳거리가사집*. 민산출판사.
 조홍윤, 이보형. (1993). *서울진오기곳*. 열화당.
 하효길, 양종승, 문무병, 이균옥, 홍태환, 이경엽, 안상경. (2002). *한국의 굿*. 민속원.
 황루시. (2001). *진도셋김곳*. 화산문화.

田口良司. (2001). *民族衣裳의 記號學 再考. 世界の 傳統服飾*. 文化出版局.

면접자

이상순. (1950년생, 무업경력 38년, 새남굿 보조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민병숙. (1930년생, 무업경력 40년, 진오기곳 보조자, 서울시 용산구).
 송순단. (1959년생, 무업경력 32년, 진도셋김곳 보조자, 전남 진도군 지산면).